



김정일의 경제분야 장악과정과 주요 인맥

유영구 / 중앙일보 북한팀 기자

김정일이 당총비서·국가주석에 공식취임하면 어차피 한차례 인사태풍이 불 것이다. 경제분야 고위간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 와중에 김달현으로 대표되는 '개방파'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제난을 해소하자면 폭과 깊이는 어떻든간에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개방파의 중용이 이루어져도 기존 경제관료들이 대거 후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분야의 김정일 인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길게는 20년, 적어도 10년 이상 형성돼온 팀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경제분야를 장악하는 과정과 그 인맥들을 훑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정무원에 대한 당적 지도체제의 재편

김정일이 1973~74년간에 노동당에서 지도권을 확립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더이상 새삼스런 사실이 아니다.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비서(조직·

선전선동 담당)로 선출되고 이듬해 2월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당 정치위원 겸 비서(당·군·정 담당)로 선출되면서 아예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된 것이다.

그뒤 김일성과 빨치산그룹은 그의 권력기반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에 주력했다. 당조직을 재편한다거나 군내의 지지기반을 만들어간다거나 혹은 이데올로기 해석의 독점권을 그에게 부여한다든가 하는 등이다. 당의 유일지도체제 확립 때문에 김일성 사후에도 김정일의 지도력이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74년부터 당조직에 보내는 모든 지시는 김정일이 통괄하도록 조치했다. 아예 힘입어 김정일은 당중앙의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일꾼들에게 하부로 나가는 지도서 및 지시는 반드시 김일성과 당중앙(즉 자신)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 또 중앙위원회의 각 부서가 하부·지방에 지도소조를 파견할 때도 김정일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관리체계를 바꿈으로써 상부에서 하부 말단에 이

르기까지 그가 장악하게 된 것이다. 지시 뿐 아니라 각급 당위원회의 보고도 모두 김정일이 관할하는 조직지도부로 집중시켰다.

이 무렵부터 조직지도부는 당·정·군 등 모든 분야의 간부 문제(인사권)를 관장하기 위한 기구 개편을 단행하고 간부사업체계를 확립해가기 시작했다. 경제분야의 고위 간부 인사는 조직지도부 간부6과가 전담케 된다.

또 같은 시기에 당·군·정·경제·과학·교육부문 등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부문·단위의 사업을 지도, 검열하는 지도검열사업체제도 수립됐다. 이같은 당조직의 장악은 다른 부문을 장악하기 위한 첫 단추였다.

김정일은 특히 1974년에 정무원 위원회·부당조직의 사업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경제기관을 장악하려는 포석이었다. 당이 정무원 산하의 각 위원회·부를 통제하는 방식을 새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전에는 정무원 당위원회와 각 위원회·부당위원회가 병렬적으로 존재했다. 정무원 당위원회가 각 위원회·부 당위원회를 통괄 지도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김정일은 정무원 당위원회의 격을 높여 각 위원회·부 당위원회를 지도할 수 있게 바꾸었다. 정무원 당위원회로 하여금 김일성 교시와 정치국 결정 등을 구

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집행하고 생산활동도 지도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기능 때문에 정무원 당위원회는 종종 당지도위원회로 불려지기도 했다.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 김정일은 정무원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했던 것이다.

“

정무원 당위원회의 책임비서는 지도력·효율을 고려해 총리가 겸하도록 했고 전임제 비서를 따로 두었다. 김달현은 한때 정무원 당위원회 제2비서로 일하면서 김정일에게 정무원의 경제사업을 보고하는 관계였다.

”

일하면서 김정일에게 정무원의 경제사업을 보고하는 관계였다.

김정일은 75년 중반부터 직접 정무원의 각 위원회·부도 행정경제기관들을 챙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군에 이은 조치였다.

경제분야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 관철 방식

김정일이 경제분야에서 지도력을 확립하는 과정을 보면 다섯가지 방식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제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휘두르는 방식이다. 둘째, 경제기관을 당조직이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당의 지도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두가지는 앞에서 설명한대로다.

그리고 세째, 그들이 혁명의 수도라 부르는

정무원 당위원회의 책임비서는 지도력·효율을 고려해 총리가 겸하도록 했고 전임제 비서를 따로 두었다. 김달현은 한때 정무원 당위원회 제2비서로

평양의 건설을 직접 관장해 주민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를 내는 방식이다. 사실 평양의 도시계획 입안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다. 김정일이 아버지의 60회 생일(82년 4월 15일)을 앞두고 각종 기념비적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경제관료 가운데 사라진 대표적인 케이스는 재정담당 부총리 김경련인데, 그는 김정일이 김일성 우상화 상징물(개선문·주체탑 등) 축조로 재정을 탕진 하는데 반대해 문제가 되었다. 김정일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회의적이라고 해서 문책당한 경우다.

네째, 경제건설에 균중을 발동시키는

대중운동을 발기하는 방식이다. 70일 전투와 2백일 전투 등이 그의 작품이다. 이 부분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70일 전투는 6개년계획의 조기 달성을 위해 1974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이고, 2백일 전투는 1988년 2월 시작된 건설 및 생산증대 운동이다. 지도자와 당의 지도에 따라 대중의 열의를 발양시켜 동원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것들은 김일성이 마련한 속도전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김정일은 당정치위원회에서 “당중앙이 당조직을 발동하여 경제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나서 경제사업을 위임받고 70일 전투를 발기했다. 당을 앞세워 모든 경제분야를 틀어쥐고 일시적

으로 지도한 것이다. 당시 경제관료들은 그의 밀어붙이기식 전투방식에 회의를 품고 공공연히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70일 동안 모든 자원과 노동력을 집중하면 특정한 경제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를 70일만 하자는 얘기인가”하는 불멘소리였다. 즉 광물자원 등과 노동력을 집중투입하면 연간계획이야 달성할 수 있지만 자원을 다 써버리면 그뒤에는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려는가 하는 것이었다. 70일 전

“
70일전투를 둘러싸고 경제관료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김정일은 이를 경제분야 장악의 발판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김정일에게 비협조적인 경제관료들은 뒷날 일선에서 물러나고 적극 지지한 인물 등이 자리를 메워갔다.

”

료들은 뒷날 일선에서 물러나고 적극 지지한 인물 등이 자리를 메워갔다. 전광업부장 김필환, 현석탄공업부장 김리용, 현전력공업부장 이지찬, 전직총위원장 한기창(1993년 4월 13일 사망), 현직총위원장 주성일 등이 70일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이다. 이들은 김정일의 밀어붙이기를 적극 지지해 출세가도를 달렸다. 한기창은 당시 김책제철소의 지배인이었고 주성일은 용성기계종합공장 직장장이었다. 김정일은 마음에 드는 공장·기업소의 현장책임자들을 발탁 인사했던 것이다.

다섯째, 대외무역 확대 및 합영법 시행, 과학 기술 중시, 연합기업소 및 독립채산제의 확대,

투를 둘러싸고 경제관료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김정일은 이를 경제분야 장악의 발판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김정일에게 비협조적인 경제관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 등 주요 경제정책을 진두에서 지휘하는 방식이다.

이 점에서 1984~85년은 중요한 해다. 합병법이 1984년에 채택됐을 뿐 아니라, 그해 3월에 독립채산제 확대 조치가 나오고, 이듬해 2월에는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 규정이 개정됐다. 1984년 7월에는 연합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또 그해에 중앙경제기관 개편 움직임도 나타났다. 정무원 산하의 기관들의 통합 혹은 분할이 있었고 새로운 기관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4년 12월에 정무원에 대외경제위원회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대외경제부서는 그뒤에 변동과 부침을 거듭했다. 1991년 12월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결정을 정책전환의 신호탄이다. 이런 정책 흐름에는 김정일의 경제인맥의 작용이 물론 있었다.

한편 김일성이 1984년 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을 강조한 뒤 김정일은 2월 1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협의회에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 내용의 중요한 연설을 했다. 8월 3일에는 경공업제품전시장을 둘러보고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과 직매점 개설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일성이 1989년 신년사에서 경공업혁명을

강조하고 이어서 6월에 당중앙위원회에서 경공업혁명 방침이 채택됐다. 김정일은 이듬해 9월에 열린 전국경공업대회에 자신의 서한을 보냈다. 인민생활을 전면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경제정책 기반에 경공업혁명을 가미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들

현경제관료들은 김정일시대에도 그대로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경제관료들 가운데

“
현경제관료들은 김정일시대에도 그대로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경제관료들 가운데 측근들이 많기 때문이다. 1993년 12월에 마련된 1994~96년간의 완충기 경제방침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경제분야의 인사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보면 역시 현재의 경제인맥이 중요하다.

”
 측근들이 많기 때문이다. 1993년 12월에 마련된 1994~96년간의 완충기 경제방침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경제분야의 인사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보면 역시 현재의 경제인맥이 중요하다.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인사는 10여년 전인 1985년 10월에 당비서 2명을 부총리에 앉히고 부총리 4명과 여타 요직을 경질하면서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1988년 이후에는 인사변화가 더 커졌다. 정무원의 위원장·부장의 인사에서 해임과 임명이 되풀이됐다. 특히 국가계획위원장의 교체가 잦았다. 계획대로 경제가 풀려가지 않는데 따른 조치일 것이다.

정무원 국가계획위원장 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핵심적인 경제관료로 자리잡고 있다. 단 홍성룡만 거취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 이들은 대개 김정일 인맥이다. 지난 20년간 이 자리를 거쳐간 사람은 6명이다. 1973년부터 1986년까지는 2번, 1986년부터 현재까지는 7번 바뀌었다. 그 명단은 이렇다.

△1973~77 홍성남 △1977.12~86.2 홍성룡
△1986.2~86.12 홍성남 △1986.12~87.10 박남기
△1987.10~88.2 홍성남 △1988.2~88.6 김달현
△1988.6~90.6 홍성남 △1990.6~92.12 최영립
△1992.12~93.12 김달현 △1993.12~95 현재 홍석형

이들 대부분은 김정일이 부상한 1970년대에 성장한 경제관료들이다. 김정일 주위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온 지도자들인 것이다.

홍성남은 현재 당정치국 후보위원이자 정무원 부총리다. 그는 체코 프라하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오래된 테크노크랫이다. 지난해 11월 1일 김정일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방송의 반향프로에서 가장 먼저 김정일을 찬양한 인물이다. 남달리 정치적 부침이 심해 당정치국을 들락거렸고 국가계획위원장에는 4차례나 기용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진화에 나서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남기는 현재 평양특별시 행정경제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당중앙에서 경제계획·산업·재정을 총괄하던 경제전문비서였다. 그는

경제통계에 밝아 김정일의 경제고문격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이 경제관련 정책 아이디어는 박남기를 거쳐 보고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고 한다. 당비서 탈락에 어떤 과오가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평양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도 만만치는 않다. 그가 김정일의 입김으로 1980년대 중반에 급격히 부상한 만큼 핵심지위로 복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김달현은 지금 함흥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3년 12월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잘나가는’ 대외경제통이었다. 김정일이 개방을 확대할 생각이면 그를 다시 주요 직책으로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는 강성산총리가 건강 때문에 집무수행이 어렵다는 소문과 함께 김달현의 ‘총리물망’설까지 나돌았던 적이 있다.

그는 1992년 남북경협 논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산업시설들을 둘러보기도 한 실무형의 개방적 인물이며 남북경협문제를 주도했다. 1991년 11월 문선명 통일교 교주일행 초청과 1992년 1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공식초청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정치경력이나 나이로 보아 파격적으로 급부상해온 그는 김일성 조카뻘로 김정일의 신진측근이다. 알바니아 국제관계대학을 나온 그는 비상한 두뇌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췄으며 성격도 개방적이고 원만하다는 평이다. 외국의 신문잡지를 손에서 놓지 않아 국제정보에도 밝

다.

그는 1984년 8월 강성산총리의 중국방문때 수행하는 등 강총리 밑에서 경제행정을 배우며 브레인인으로 활동했다. 그의 이력에서 중요한 해는 1988년이다. 6월에 국가계획위원장에서 대외경제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8월에는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이사장, 10월에는 무역부장까지 겸하게 되어 대외부문의 총수가 됐기 때문이다. 1990년 5월에는 부총리로 승진해 이례적으로 부총리·대외경제위원장·무역부장을 겸하기까지 했다. 그런 그가 1992년 12월에 국가계획위원장(이전에 정치국 후보위원 발탁)으로 자리를 옮길 때

만 해도 각광을 받았는데 1년만에 물을 먹게 된 것이다. 향후 거취가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다.

최영림은 현재 부총리 겸 금속공업부장이다. 1967년 박금철·이효순사건 때 반김일성 세력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그뒤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일하다가 1970년에 내각참사실장(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다. 조직지도부 부부장·김일성비서실장 때 김정일과도 가까워진 최는 김정일의 후계자 부상에도 힘을 쏟았다. 김정일은 1974년에 당중앙위원회에 주석부를 신설하여 주석공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그 일을 최

에게 맡겼다. 김정일 지도체제가 확립되던 시기에 그는 당 총무부장·주석부장을 맡아 김정일과는 땀겨야 땀 수 없는 관계를 형성했다. 10여년간 김일성·김정일의 비서업무를 하던 그는 1980년 6차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1982년 8월에 정치국 위원으로 급부상했다. 1984년 2월 부총리로 정무원에 참가해 행정경제기관의 핵심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제수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에게도 정치적 시련은 있었다. 1985년 10월에 부총리에서, 1986년 10월에는 정치국 위원에서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1990년에 정치

국 후보위원·정무원 부총리(5월), 국가계획위원장 겸직(6월)으로 복귀해 건재를 과시했다. 국가계획위원장 자리는 1992년 12월에 김달현에게 넘겨주고 금속공업부장을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경제의 양산맥은 민간경제 책임기구인 정무원(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행정경제기관)과 군수공업 책임기구인 제2경제위원회(국방위원회 산하)이다. 최정상에는 언제나 당기관이 사라잡고 있다. 정무원은 총리 강성산이. 제2경제위원회는 국방위원 전병호 김철만 라인이 많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강성산과 전병호가 김정일의 핵심인맥이다.”

김달현에 이어 국가계획위원장 자리에 기용된 홍석형은 새롭게 떠오르는 별이다. 경제계획의 총수일 뿐만 아니라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에 금속공업부 제1부부장을 역임했고 김책제철소 당비서로 일하다가 발탁됐다. 소설 『임격정』의 저자 홍명희의 친손자다.

강성산과 전병호

경제의 양산맥은 민간경제 책임기구인 정부원(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행정경제기관)과 군수공업 책임기구인 제2경제위원회(국방위원회 산하)이다. 최정상에는 언제나 당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원은 총리 강성산(당정치국 위원)이, 제2경제위원회는 국방위원 전병호(당정치국 위원·군수담당비서·군수공업정책 김철부장)·김철만(당정치국 후보위원 겸 2경위원장) 라인이 맡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강성산과 전병호가 김정일의 핵심인맥이다.

강성산은 전 총리인 연형묵·이근모와 함께 북한경제를 진두지휘해온 테크노크랫으로 김일성·김정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아왔다. 체코 프라하공대에서 유학한 엘리트인 강은 반종파투쟁(1956년 연안파, 1956~60년 소련파, 1967년 갑산파, 1969~70년 군부강경파) 때마다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했으며 김정일의 후계자 옹립에 앞장섰다.

강성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것은 1984년 1월의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 자리였다. 제1부총리 자격으로 “남남협력(제3세계와의 협력)과 대외경제활동을 강화하고 무역활동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한 뒤 총리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그의 보고는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경제교류 적극화를 주장한 것이었다. 그뒤 앞에서 언급한 부분적인 경제개방정책들이 나왔다. 그리고 1984년 12월 정

무원에 대외경제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강은 86년 12월 당비서로 자리를 옮겼다(후임 이근모). 이를 두고 성급한 경제개방에 대한 우려, 중공업노선으로의 회귀 등 추측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총리 해임 뒤에도 정치국원·비서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뒤 그는 1988월 3월 함북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에 취임했다. 1991년 표면화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도 그의 작품이라는 관측이 많다.

1992년 9월 김일성은 함북도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함북에서 몇년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만족을 표명했다. 강성산의 업무를 평가한 것이다. 강의 총리 복귀도 이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1992년 10월에 외국인투자법, 외국기업법 등을 채택, 자유경제무역지구 에 100% 외자가업도 허가하는 획기적인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 당정치국 위원·당비서(군수담당)·국방위원인 전병호는 김정일시대에 들어와 승승장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모스크바대학 유학 시절 금속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주로 당기관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전문당료지만 지금은 군수총책이다. 전은 김정일 유일지도체제 확립의 침병 역할을 하며 권력핵심에 진입했다. 군수산업과의 인연은 1982년에 제2경제위원장으로 기용되면서 맺어졌고 1986년에는 당비서로 자리를 옮겨 제2경제위원회에 대한 당의 통제

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성룡과 김경희

민간경제 라인은 정부원 뿐 아니라 당기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경제기관에 대한 당기관의 우위가 통용되기 때문이다.

당쪽의 최고책임자는 한성룡(당정치국 위원·경제담당비서·경제정책 겸임 부장)이다. 당중앙의 경제 전문부서에는 군수공업·경제정책 겸임부 외에도 농업정책 겸임부, 계획재정부, 중공업부, 경공업부, 건설운수부 등이 있는데 경공업부장인 김경희의 입김이 세다.

한성룡은 체코 프라하공대에서 기계공학을 배운 전형적인 테크노크랫이다. 그는 유학뒤에 희천공작기계공장 기사로 배치되었다가 60년에 당중앙위 중공업부 지도원으로 당중앙에 진입했다. 그가 김정일과 깊은 인

연을 맺은 것은 김정일이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해가는 시기에 잠시 정무원 사무국장(정무원당위원회 비서 겸임)으로 일하면서였다. 그는 김정일이 정무원 사업에 대해 깊이 관여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아 급속히 가까워졌다. 그뒤

줄곧 김정일의 정치적 거취와 행보를 같이하다가 당부장·비서로 고속 승진하게 된다.

한성룡은 당의 경제노선을 국가부문에서 실현하는 자리인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병기생산(특히 기사일분야)이나 군수공장 건설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당과 국가 경제정책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실권자다.

김경희는 김정일의 유일한 친혈육인만큼 최측근이 아닐 수 없다. 그녀는 김일성 일가담계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며 주로 당내활동에 국한되어 왔다. 그녀가 당 경공업부장에 취임한 것

은 87년 9월로 알려져 있다. 그 전에는 당국제부 부부장으로 외교분야의 인사를 전담한 배임숙의 실력자였다. 이제 김정일이 강조해온 경공업혁명·봉사혁명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장)도 빼놓

“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장)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오른팔로 비견되며 1989년의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 및 행사 일체를 책임지는 등 ‘타스크 포스’팀을 이끄는 일이 많았다. 중앙당의 외화관리에 깊이 관여한다는 정보도 있다. 1983년 이후 줄곧 당자금을 관리해온 책임자 노명근(재정경리부장)도 김정일의 비자금을 맡는 측근으로 분류된다. ”

을 수 없는 인물이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오른팔로 비견되며 1989년의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 및 행사 일체를 책임지는 등 ‘타스크 포스’팀을 이끄는 일이 많았다. 중앙당의 외화관리에 깊이 관여한다는 정보도 있다. 1983년

이후 출판 당자금을 관리해온 책임자 노병근(재정경리부장)도 김정일의 비자금을 맡는 측근으로 분류된다. 1986년부터 노동당내의 외화벌이업체 장광사업총국 고문직을 겸하고 있다.

김경희 밑에는 경공업분야의 숨은 실력자가 있다. 당경공업부 제1부부장 강순희다. 그녀는 1984년 11월부터 당 제2경제부장(현경공업부장, 정무원 경공업위원회 부위원장 역임)을 맡다가 김경희에게 이 자리를 내주고 제1부부장으로 일해왔다. 그녀는 김경희의 대학선배(김일성대)로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그녀는 1985년 7월 김정일의 경공업제품 전시장 현지지도를 수행하는 등 김정일의 여성참모로 활약해왔다.

1958년 내각 경공업성 부상을 시발로 40여년 경공업분야에서 일해온 김복신 부총리(경공업위원장 겸임) 역시 김경희와 손발을 맞추며 김정일의 경공업정책을 보필해온 측근이다.

북한의 대외 개방파들

한편 정무원 부총리 김환(화학공업부장 겸임)과 대외경제위원장 이성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정우,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장 이성록 등도 김정일의 경제인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김정우와 이성록은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김환 부총리는 구동독 라이프치히의 칼마르크스공대 대학원에서 화학분야를 전공했다. 귀국후 과학원 화학연구소에서 일하다 1962년 당

중공업과정에 임명되면서 당중앙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1968년 내각 방직·제지공업성 부상을 거쳐 1972년 12월 정무원 화학공업부장에 취임해 이 분야의 1인자가 됐다. 김정일과의 인연은 1974년 10월 당중앙 학교교육부장에 앉으면서 깊어진다. 그뒤 정치국 위원까지 올라간 것은 김정일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알려져있다. 그는 1980년 10월 6차당대회에서 정치국원·비서로 선출되고 1982년 4월 중앙인민위원 및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장에도 선출되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게 된다.

승승장구하던 그가 빠져거리기 시작한 것은 1983년 6월 당비서에서 해임되고 부총리로 전출되면서다. 그뒤 부총리, 당비서, 정무원 화학공업위원장, 부총리 겸 화학공업부장 등 해임·임명을 되풀이해왔다. 이와 관련, 김환은 양강도 김정숙군에 중국식 특구를 만들려다 좌초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김정일의 지지를 받아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고 계획을 추진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김일성의 반대로 백지화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나진·선봉지구의 개발계획을 볼 때 김환의 역할은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국 재진입은 물론이고 총리까지 바라볼 수 있다.

김성대는 김정우·이성록과 함께 김달현 이후의 대외경제 트로이카다. 1980년에 식료상사 지도원으로 이 분야에 입문한 그는 1982년까지 3차례 일본을 방문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김달현이 무역부장을 맡던 1988년 이후 4년쯤 그 밑에서 실무를 맡았고 1992

년 7월 김달현의 서울방문때 수행하기도 했다. 그해 12월에 김달현 후임으로 대외경제위원장에 전격 발탁했다.

김정우는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이자 교류협력분과위원회·경제교류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을 맡은 실무자다. 김정일의 두터운 신임아래 대외경협에 나서고 있으며 나진·선봉지구에 외자·설비를 끌어들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 최근에는 북미간의 핵협상, 특히 경수로문제에 참가해 다방면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김정일에게서 신임을 받는 실무자다.

1970년대 말부터 대외경제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성복은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장 부위원장, 국제무역촉진위원장 등도 겸하고 있는 실무자다.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장으로 일하면서 북측에 노크하는 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들에게 초청장 및 특별통행증 발부의 실력을 보여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뇌물공여와 관련된 여러 소문이 나돌면서 자리를 옮겼다는 설이 있고 2월말에 고민발이 해체되고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 통합기구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아직 그의 거취는 불투명하다.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활동하

게 될지 주목된다.

김정일 측근은 아니지만 나진·선봉지구가 있는 함북의 도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인 이근모도 경제개방과 관련해 주목되는 인물이다. 그는 레닌그라드공대에서 유학한 기계공업 전문가로 1986년 12월에 강성산 후임으로 총리에 발탁됐다가 2년만에 해임되어 많은 억측을 낳았다. 과감한 개혁정책을 주장해 김일성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는 1992년에 4년간의 정치공백을 깨고 함북책임자로 재기용돼 개방지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총리로 민간경제 전반을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

“ 김환은 광강도 김선숙군에 중국식 특구를 만들려다 좌초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김정일의 지지를 받아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고 계획을 추진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김일성의 반대로 백지화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나진·선봉지구의 개발계획을 볼 때 김환의 역할은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국 재진입은 물론이고 총리까지 배척될 수 있다.”

문에 어느 자리나 이동이 가능한 인물이다. 김정일이 1994~96년간의 완충기 경제방침들을 수행해 가는 동안에는 현재의 고위 경제 관료 라인업이 그대로 유지되고 경제정책에 새로운 전환이 나타날 경우 그에 걸맞

게 경제인맥들이 일부 조정될 것이다. 김정일은 지금 체제유지와 권력유지 못지않게 경제살리기의 묘안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경제회생의 핵심은 역시 새 정책과 이를 밀고 나갈 경제인맥이다. 경제인맥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가 주목된다. [김]